불자 세상보기

'유연함'이 남북 갈등 해소의 비법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불교계 연이은 방북으로
남북교류 활성화 기대 낳아
내년 정치 일정 고려할 때
정부 대북관계 안정화 나서야

최근 북측 조선종교인협의회의 초청으로 불교를 비롯한 개신교와 천주교 등 7대 종단의 지도자들이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최근 연이어 두 차례나 방북해서 남북불교교류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 종교인들의 방북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 등을 계기로 남북 사회문화 교류가 활성화되고 당국간 대화도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남북교류가 이뤄지기 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이 전면 차단된 것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24 조치에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북한은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천안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비핵화회담이 두 차례 열리고 남측 인사들의 방북이 이어지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원칙 위주의 대북정책에서 유연한 대북정책으로의 방향 조정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류우익 前 대통령실장이 통일부 장관에 취임했다. 류 장관은 원칙 위주의 대북정책에서 '원칙을 지키되 유연성을 발휘'하는 쪽으로 대북정책의 방향을 조정할 것임을 밝혔다.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것은 야구에 비유하면 직구 위주에서 커브나 유인구를 적절히 배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남측은 북측이 야구방망이가 아닌 총을 가지고 타석에 들어서기 때문에 공을 던질 수 없다고 하면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일관해왔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려면 대북관과 정세관을 바꿔야 한다. 북한 불량국가론과 급변사태론을 유지할 경우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은 "머지않아 통일이 가까운 것을 느낀다", "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밝히는 등 북한 체제변화를 희망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해왔다. 급변사태가 임박했다고 북한정세를 판단할 경우 대화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압력만으로는 급변사태를 유도할 수 없다. 교류협력을 통한 주민들의 의식변화, 국제체제로 들어와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유인, 체제전환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동유럽의 역사적 경험 등을 참고해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기약없는 급변사태론에 기대어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개방촉진과 민주화로의 이행을 추동할 수 있는 대북전략이 시급하다.

내년도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도 이명박 정부는 급변사태론에 매달리기보다는 남북관계 안정화 쪽으로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2012년 3월 서울에서 열릴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남북관계 안정화와 북핵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개최국으로서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2010년 11월에 열린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과가 북한의 연평도포격으로 한순간에 날아간 전례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원칙 위주의 대북정책에서 유연성 있는 대북정책으로 방향을 수정하고 남북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올 하반기 6자회담을 재개하지 못하면 북핵문제 해결노력은 주요국 권력교체와 맞물려 장기 공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반기가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점에서 본격적인 대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부대중 칼럼

달이 고깔 모양이라니

배광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금타화상, 〈우주의 본질과 형량〉서
달이 원뿔대 모양 주장
현대 과학으로도 밝혀져
수릉엄삼매는 108삼매 중 최고

올 추석은 흐린 날씨여서 보름달을 볼 수 없었고, 보름이 지난 다음에야 조금은 이지러진 달을 구름 사이로 언뜻언뜻 볼 수 있었다.

매년 높아진 가을 하늘에 걸린 한가위 달을 보노라면, 적당히 살갗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명징하면서도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곤 하였다.

달은 친절하게도 밤길을 걷는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밝혀준다. 어릴 때 달밤을 걸으면서 달이 따라오는 경험은 누구나 했을 것이다.

달이 둥글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던 나에게, 금타 대화상의 저작 〈우주의 본질과 형량〉에서 달이 원뿔대(고깔) 모양이라고 기술된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우리가 보는 달의 면은 원뿔대의 넓은 밑면이라는 것이다. 대화상은 당시의 최신 과학에 정통한 지식을 가진 분이었고, 100항으로 된 우주론 내용의 체계가 빈틈이 없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올 8월 〈네이쳐〉지에 "45억년 전 지구가 생성된 후, 화성만한 행성이 지구를 들이받아 지구의 내부물질이 튕겨나가 두 개의 달이 되었다. 그들은 각각의 궤도를 가지고 지구를 공전하다가, 7000만년 후 작은 달이 몇 시간에 걸친 저속 추돌로 큰 달에 합체되었고, 그래서 달의 뒷면은 솟아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그렇다면 달이 거의 원뿔대의 모양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에 의해서도 밝혀진 셈이다.

금타대화상의 저작은 청화 큰스님이 은사이신 금타(金陀) 대화상의 유고들을 보존하다가, 〈금강심론(金剛心論)〉으로 처음 엮어 펴낸 것이다. 이 때가 1979년 5월 15일이다. 이 중에 제4편으로 들어간 '우주(宇宙)의 본질(本質)과 형량(形量)'의 저술일이 1942년 6월 9일임을 감안하면, 저술 후 37년 만에 햇빛을 본 셈이다.

청화 큰스님은 백양사 운문암(雲門庵)으로 출가를 해서, 큰방에 금타대화상의 수릉엄삼매도가 걸린 것을 보고 환희심이 났다고 전한다.

가난한 절살림에 부목하랴, 공양주 하랴, 또 공비도 출몰하는 등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안되겠구나. 다른 데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른 데로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 수릉엄삼매도가 욕심나서 갈 수가 있습니까? 아직 행자인지라 협착하고 누추한 뒷방에서 밤에 호롱불을 켜놓고서, 그것도 밖에 비치면 어른 스님들한테 꾸중을 들으니까 해어진 모포로 창을 가리고서 삼매도를 베꼈습니다. 나중에는 금타 스님께서 직접 그려서 복사한 수릉엄삼매도 3장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제게는 아주 인연 깊은 수릉엄삼매도 입니다"라고 법문 중에 술회하신 적이 있다.

1985년 태안사에서 청화 큰스님에게 '금강심론'을 처음 받고, 지금까지 꾸준히 읽어왔으니, 25년이 넘게 읽은 셈이다. 태장계만다라와 금강계만다라를 모두 포함한 만다라인 '수릉엄삼매도'의 해설인 '수릉엄삼매도결 상편'은 금강심론에 실려 있으나, 공부가 짧아 아직 이해 못한 부분이 많고, 나머지 하편 절반 해설은 저술 자체가 없으니 스스로 알아내야하는 숙제이다. 청화 큰스님 법문집 〈원통불법의 요체〉에 〈금강심론〉 중 '수릉엄삼매도결 상편'과 '우주의 본질과 형량' 개략을 쉽게 풀어놓은 부분에 힘입어 그나마 공부의 재미를 느끼고 금강 도반들과 함께 천착하고 있다.

수릉엄삼매는 108삼매 중 최고의 삼매이면서, 건상(健相)과 건행(健行) 곧 건강하고 유익한 모습과 행동을 지속해가는 것이니, 최근에 웰빙 이후 추구되는 로하스(LOHAS)를 포함하는 삼매라 하겠다.

社說

간화선 대중화하려면 信心부터

간화선은 한국불교 대표 수행법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어렵다. 그런데 사람들은 "간화선은 어렵다"고만 말한다.

9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간화선을 주제로 열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토론회는 이 같은 여론을 또다시 증명해주는 행사였다.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의 "오늘날 선원에서는 간화선을 한다고 하면서 오직 편안한 가운데서 태평선만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열 유마선원장은 간화선이 최상승법이라는데 의문을 제기했다. 모두 간화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간화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분명 이들의 의심보다 더 큰 불행일지 모른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믿음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 수행법인 간화선도 화두를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 화두를 통해 깨달음의 세계에 다다른 선지식들에 대한 믿음이 바탕되지 않으면 안된다.

종교는 믿음이고, 믿음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하심에서만이 가능하다.

9월 29일, 프랑스 떼제공동체의 수사들을 만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수사들의 밝은 표정이 어린 아이 같다"며 극찬한 것도 그들은 하심을 생활 속에서 진지하게 실천 중이기 때문이리라.

간화선에 대한 갑론을박은 좋다. 화두를 들고 무작정 앉아있는 것이 답답하다면 자신부터 돌아볼 일이다.

또 다른 '끌로드 로베'와의 만남을

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9월 27일~10월 2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다. 지난해 미국 뉴욕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행사이다.

방문 기간 동안,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조계종 대표단은 프랑스에서 많은 일들을 했다.

한국문화원에서 한국불교문화체험 리셉션을 열었고, 세계 문화정책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한국불교문화를 소개했다.

범기독교 수행단체인 떼제공동체를 방문해서는 이웃종교와의 화합과 교류를 통한 세계평화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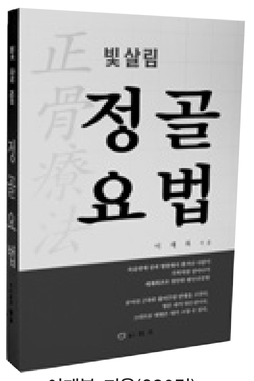
이번 방문에서 조계종 대표단은 연간 방문객 10만명이라는 단일 수행단체로는 쉽지 않은 떼제 만의 노하우를 템플스테이에 적용시키고자 고민도 하고 왔다.

대표단은 수차례 사찰음식을 소개하면서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 한국의 사찰음식이 채식문화의 한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 한 예가 2012년 세계 최대의 백화점 갤러리 라파예트에 한국사찰음식 전문 레스토랑이 들어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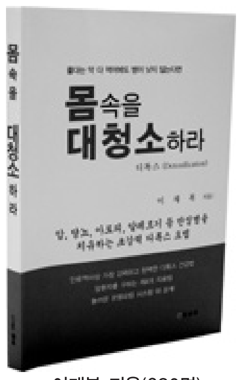
음식비평가 끌로드 르베 씨는 사찰음식에 매료된 나머지 대안 스님이 선물한 단주를 꼭 차고 다닌다. 그는 라파예트 백화점에 한국사찰음식 코너가 만들어지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조계종의 이번 프랑스 방문이 프랑스인(佛人)들의 마음에 불성(佛性)을 돌아보게 했다고 믿고 싶다. 이번 방문이 제2, 제3의 끌로드 로베 씨의 출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이재복 지음(280면)
정가 12,000원



이재복 지음(280면)
정가 12,000원

※ 누구든지 그림을 보고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폐결핵,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쫓겨나서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 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빛 살림
정正골骨 요법

침, 뜸, 부항, 물리치료, 척추교정, 무중력 감압치료, 수술, 경락, 지압 등 대증치료를 오래도록 받았어도 증상이 계속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책을 읽고 오셔서 한번만 체험해보시면 대번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전신의 상쾌함을 곧바로 몸이 느끼게 됩니다.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운동법이 사람을 살립니다.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어깨통증, 오십견, 협착증, 좌골신경통, 목 뻣뻣, 수족냉증, 갑상선, 안면마비, 휜다리, 암, 교통사고 후유증, 우울증, 불면증
당뇨, 아토피, 부정맥, 류마치스, 협심증, 두통, 심근경색증, 생리통, 발기부전, 전립선, 체온저하증, 골병으로 인한 통증, 적취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꽉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 요법.
자궁근종, 암수술전·후. 항암치료 마치신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책. 강력하고 놀라운 디톡스로 몸속을 대청소한다.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싹~ 뽑아내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NAVER 정골본가 검색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정골본가(이영숙) 서울 성수동1가 14-35(우영B/D 4층) ·제2010-서울성동 0204호 ·207-01-43500

■ 도서구입안내
빛살림 요법 강좌세트(2권). 책값 20,000원을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 농협계좌 : 농협 : 751017-52-024285 김순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책신청 : 054)637-9810